

#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

### 대학 유휴부지 활용한 첨단산업 조성사업 추진... 2030년까지 1110억 투입·3단계로 사업 진행 방침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역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 입주시설과 창업지원시설,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을 마련해 정부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 공동 공모사업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17개 대학에서 제안서를 제출, 8.5대 1의 경쟁을 뚫고 전북대와 원광대 등 2개 대학이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구정문 및 실내체육관 일대에 부지면적 36,580㎡에 총 사업비 1,11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1단계 사업인 산학연 혁신 허브 건립 사업으로,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비 510억원을 투입해 문화콘텐츠, ICT, 바이오융복합을 중심으로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소, 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의 복합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메타버스 중심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전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I-

TOWN)과 연계해 개발할 예정으로 미래 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 동력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중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계획수립을 완료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고, 산학연 혁신허브 건립 공사를 착공해 2028년에는 준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신원식 부지사와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현장 실사 평가와 종합평가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주시의 도시재생뉴

딜사업과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연계 전략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하는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보다 유망한 사업 수행이 기대된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단장인 조기환 연구부총장(산학협력단장)과 추진단장인 홍철은 처장(산학협력처장)은 "전북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산학연 혁신허브 건립 등에 있어 중앙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우석대서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 한국경영사학회 '지속가능성 성장 위한 ESG 경영 시대와 중소기업의 역할' 주제 진행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와 (사)한국경영사학회(회장 송재훈)는 10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시대와 중소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오석흥 부총장과 곽오열 ESG 국가정책연구소장, 송재훈 한국경영사학회 회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용승 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송재훈 한국경영사학회 회장 개회사, 곽오열 ESG 국가정책연구소장 환영사, 남천현 총장 축사, 우범기 전주 시장 당선인 기조연설, 세션별 발표 및 토론 학술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남천현 총장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인간중심과 환경,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 시대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ESG 경영에 대한 혁신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더 나아가 ESG 경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듬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오열 ESG 국가정책연구소장과 송재훈 한국경영사학회장은 "각 분야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동안 국내 ESG 관련 연구의 현수소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ESG 관련 정책 연구와 ESG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석대학교 최광 대학원생이 '중국 중소기업의 리더십 스타일'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경영사학회로부터 최우수 논문상을, 양원지에 가천대 대학원생이 우수 논문상을 각각 수상했다. /정은성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대통령"

### 尹 발언에 "시장주의적 접근은 교육계의 폐해·갈등 양산 할 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전교조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과거 한심한 정부들이 경제학자나 경제관료 출신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도 했지만, 경쟁·효율·선택과 같은 시장주의적 접근은 자사고,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교육계의 대표적 폐해, 갈등만 안긴왔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에서부터 교

육분야 인사를 배제했다.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교육부 장관·차관까지 교육전문가가 아닌 행정전문가를 지명하면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인재 공급을 운운한 바로 다음날, 신임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대학의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윤석열 정부에

"우리나라에는 검사 말고 교사도 있다. 검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사람이라면, 교사는 미래 세대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며 "총리실·국정원·금감원에 보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교육전문가인 교사 집단이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토탈관광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

대상·격포 서로길 프로젝트 팀·최우수상·'투게더-오수의견 관광지 활성화 방안' 팀 수상

전주대학교는 최근 은누리홀에서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와 문화관광커플링사업단과 연계해 '토탈관광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는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 6기부터 핵심 정책과 관련된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접목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로, 2015년도부터 토탈관광, 삼락농정,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전주대, 전북대, 원광대 3개 대학이 시작해 현재 6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주대는 '토탈관광 프로젝트' 과목으로 전북도가 추구하는 '체질관광 일반지'의 과제들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경여 한양사이버대학 교수, 정은하 은하항공 대표가 맡았다.

이날 대상은 '격포 서로길 프로젝트(팀장 김윤태, 관광경영학과 4학년)' 팀이, 최우수상은 '투게더-오수의견 관광지 활성화 방안(팀장 박호진, 관광경영학과 4학년)' 팀이 수상했다.

지도를 맡은 송광인 교수(관광경영학과)는 "이론 중심 수업이 아닌 특강, 토론 등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의 과제들을 도출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해결책을 제시해 전북의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높은 긍지를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총, "현장 교사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워"

### 서거서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출범 관련...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바로 세우길"

지난 9일 서거서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수위원 규모는 기획운영, 정책공약, 인사조직, 소통협력, 재정운영 등 5개 분과에 12명의 인수위원으로 꾸러졌다. 인수위원장은 이종민 동화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이날 인수위는 전문성, 실무능력, 소통, 화합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계,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문화예술계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도민과 학생, 학부모, 교원의 목소리

를 담아 서 당선인의 교육철학을 반영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희망찬 전북교육을 실현하길 바란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북교육감 인수위는 서거서 당선인의 공약을 잘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꾸러졌고, 또 교육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해 근시안적 교육정책을 탈피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서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 온 '소통'을 바탕으로 이념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희망찬 전북교육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인수위가 되길 응원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된 인수위원회의 분과 분야명과 인수위원은 서거서 당선인의 향후 교육정책 실현 방향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이 포함된 분과명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

또 현장 교사가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이해하는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수위원 12명 중 교원은 4명(교장3, 교감)이며, 교사는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은 지난 12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점에서 있다"면서 "현장 교사들은 전북교육의 학생들을 위해 전북 맞춤형 교육이 시행될 수 있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라며,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은 많은 현장 교사들이 포함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사노조, "현직 교사 출신 한명도 없어 유감"

### 교육감직 인수위 구성에... "혁신 통해 수요자 행복 만들어내길"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서거서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에 대한 전북교사노조의 의견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서거서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4월 21일 학부모와 학생, 교원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그가 발표한 행정 혁신 추진의 골자는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학교 표준업무 매뉴얼', '교원 진보·승진 가산점 제도 개선', '도교육청 조직과 예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슬립다'.

이 중 '학교 표준업무 매뉴얼'이나

'교원 진보·승진 가산점 제도 개선' 등은 현재 전북교육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현장전문가의 역량이 크게 요구되는 것들이다. 교육현장이 한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로부터 1~2년만 떨어져 있어도 현장의 이슈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거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대표위원에는 현직 교사가 단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정은성 기자

또한 서거서 당선인의 미래교육 6대 공약 중 '메이커를 이용한 수업혁신', '학생 중심의 공간 혁신'이 과연 현장교사의 살아있는 경험 없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혁신과 발전은 현장 실무의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타당공론이 아닌,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전북교육청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 8월 11일 시험... 20~24일 응시원서 교부

2022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오는 8월 11일 치러진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응시원서는 20~24일까지 14개 시군 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교부한다.

초졸 응시자는 전주 원주를 제외한 12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별관 2층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중졸, 고졸 응시자는 도교육청 별관 2층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 가능하다.

다만, 접수처 방문 시 반드시 개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문 접수가 어렵거나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 누리집(https://kged.je.go.kr)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1일 단축된 20~23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응시자들은 원서접수를 위해 최종화력경명서, 증명사진 2매,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시험장소는 7월 29일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8월 30일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13~14일 직업계고 이해 연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2학년도 중3 담임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이해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학생인구 감소와 직업계고 선호도 약화로 신입생 충원률

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업계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연수는 크게 '직업계고의 이해 특강'과 '전라북도교육청 직업계고 안내'로 이뤄진다. 직업계고 이해 특강에는 영종국제물류고 운영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강사로 나서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평생교육원, 인문학 특강 실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이 지역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인문학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문학 특강은 6월 17일 시작, 매월 셋째주 금요일 경인동에 위치한 전북대 평생교육원서 진행된다.

첫 번째 특강은 이태영 전북대 명예교수(국어국문학)가 문을 연다. 이 명예교수는 '전북 방언의 역사성과 지역 문화 특성'을 주제로 지역 문화의 희소성과 특징 등을 전한다.

또한 7월에는 조미애 시인이 '詩집에서 놀다가 전북의 작고 시인 명시감'을 주제로 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시인들의 명사와 시인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밖에 도 지역민들에게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워줄 전북 출신의 명사들이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모든 특강은 무료다.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c.jnu.ac.kr/)와 전화(063-288-0022)로 신청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